



봉선2동 성당 임부택 대건안드레아 작

빛고을

2022. 5. 15. 부활 제5주일

지친세상에
기쁨과 희망을

3개년 특별 전교의 해(2020-2022)

입당송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 드러내셨네. 알렐루야.

제1독서 사도 14,21ㄴ-27

제2독서 묵시 21,1-5ㄴ

복음 요한 13,31-33, 34-35

화답송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세세 당신이름을 찬미하나이다

복음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4)

“서로 사랑하여라.”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은 이 사랑의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해왔다” (15,9). 우리에게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참되신 것은 아버지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며 아버지는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낸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는 그런 모진 사랑을 사랑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들은 자기를 죽음에 내놓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인류에 대한 사랑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신뢰하며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기꺼이 죽음을 향하여 당신의 몸을 내놓으셨습니다. 아들을 죽음에 부치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의 마음에서 우리는 사랑의 절정을 체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은 자신과 아버지 사이에 일어난 사랑을 지금 제자에게 요구하십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도망쳤던 이유는 그분처럼 희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희생으로 바쳤을 때 그 죽음을 보며 제자들은 인류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남을 부활시키는 죽음이었습니다. 남을 부활시키고 그분은 밀알처럼 썩어 사라지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13,34). 예수님이 오늘 주신 이 새 계명은 인류가 예수님의 방식으로 서로 사랑할 때 완성될 것입니다.

이준호 세례자요한 신부
소록도 본당



新요리문답

68. 세례를 받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신앙 때문에 죽음을 당한 사람들과, 예비신자들, 그리고 교회를 모르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의 뜻을 은총의 영향 아래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281).



QR코드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해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율법

갈라티아서에 대한 연재를 마무리하면서 바오로 서간의 주요 신학적 개념인, '율법', '의로움', '자유'에 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율법에 관련하여 갈라티아서에는 다소 상반된 내용이 발견됩니다. 바오로는 5,2-4에서 신앙인들이 율법을 준수하는 삶에 속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3,10; 4,4-5 참조). 하지만 5,14에서는 레위 19,18("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웃 사랑이 하느님의 뜻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오로는 편지 몸말에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창세 12,3; 갈라 3,8)이나 아브라함의 두 아들과 그들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창세 16장, 21장; 갈라 4,21-31)를 언급함으로써 율법을 신앙인의 삶에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과 관련하여 상반되어 보이는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바오로 사도에게 율법은 구속적(拘束的) 기능과 예언적(預言的) 기능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처음에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믿는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감시자(παιδαγωγός) 역할을 했습니다(3,24). 이때 하느님을 믿는 이들은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때가 되어 당신 아들을 보내시어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을 속량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4,4-5). 따라서 믿는 이들은 더 이상 율법의 속박 아래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구속적 기능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 율법의 예언적 기능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언제나 유효합니다. 율법은 인간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바오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설명하면서 율법을 인용하는 것은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예언적 측면에서 신앙인들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율법의 두 가지 기능적 해석은 율법과 관련하여 상반되어 보이는 내용을 이해하게 해 줍니다. 바오로가 5,2-4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인들이 더 이상 율법의 구속력 아래 있지 않음을 표현합니다. 반면 5,14의 언급과 편지 몸말에서 창세기 말씀 인용은 율법의 예언적 기능에 초점을 두어 하느님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신앙인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율법 조항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결과, 곧 하느님께서 당신 자녀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결과입니다. 마치 바오로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2,20).

김영남 가브리엘 신부
학다리 본당

새로운 생명으로 건너가시다

날씨가 온화한 성목요일이었다. 주님 수난 예고와 상관없이 겹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거리엔 철쭉마저 만발했다. 장애 학생들이 흙으로 그릇을 빚었다. 그릇 표면에 사과나무 그림도 그렸다. 연두와 노랑, 빨강색 물감을 붓에 묻혀 흙 그릇에 점을 빼곡히 찍었다. 물감 점들이 동그마니 모여 열매가 주렁주렁한 나무로 변신했다. 사과나무에 앉아 노래하고 싶은 건가. 남학생이 휘파람을 불었다.

쉬는 시간, 무심코 휴대전화를 열었다. 안타까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2022년 4월 13일(수), 오후 2시 57분경 향년 91세의 일기로 선종하심.’

살레시오 수도회 노승피 로베르토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해주길 청하는 문자가 ‘파스카 성삼일’의 문을 육중하게 열었다. 학생들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 없었다. 순간 눈을 감았다. 수도원의 묵상 피정을 가족과 다니며 뵈게 된 신부님과 인연도 어언 이십 년이다. 미국에서 출생하셔서 1956년에 실습자 신분으로 선교지 한국에 파견되신 후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다 노환으로 하느님 품에 안기신 신부님.

편찮으신 시어머님을 위해 기도해주려 자전거타고 오시겠다고 하셔서 놀랐던 기억이 슬픔의 물결로 밀려왔다. 어느 학교에 근무했을 적엔 장애 학생들에게 강복해주고 싶다고 오셔서 미소 지으며 악수하셨다. 그런 신부님을 하느님 곁으로 보내드리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참으로 없었다.



성모송을 사랑하셨던 신부님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성모송만 바칠 뿐……. 세상에 계시는 동안 많은 이들의 발을 씻어주셨을 신부님의 양손을 어루만지듯 성목요일이 애잔하게 저물었다.

성금요일 오후, 신안동 수도원 빈소로 갔다. 가족들을 아껴주신 자애로움이 국화 향기로 마음 언저리에 파고들었다. 울음은 언제까지나 참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왈각 눈물보가 터졌다. 우리가 가족처럼 신부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여러 사람들이 빈자리를 채우고 앉아 연도를 바쳤다. 위령기도 소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엠마오 길로 앞서 걸어가시는 신부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며 울려 퍼졌다.

“주님,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드신 신부님께……”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김양화 소화데레사 / 동림동 성당
광주문인협회 회원(시인, 수필가)

영화 랜드(Land, 2021)



“예수님께서서는 일
어나 외딴곳으로 나
가서어 그곳에서 기
도하셨다”(마르 1,35).

영화 「랜드」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과 아들을 잃은 주인공 ‘이디’가 아무도 살지 않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디는 자신의 슬픔을 이기지 못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싫어져 무모하게 보이는 혼자만의 삶에 도전한 것이다.

그녀는 모든 것을 단절한다. 끝까지 자신을 챙겨주는 여동생의 전화도 더 이상 받지 않고, 동생과의 소통의 도구인 핸드폰을 버리고, 타고 온 렌터카도 돌려보낸다. 그리고 전화도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숲속 오두막에서 우두커니 지낸다.

그녀의 하루는 단순하다. 오두막 주위를 둘러보고, 낚시하거나, 텃밭을 일구고, 별이 좋은 곳에 앉아 독서를 한다. 나름 좋았던 일상도 계절의 변화 앞에서 위기를 맞이하는데, 매서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겨울이 되자 양식이 떨어져 굶주리게 되고 장작을 찾으러 갔다가 정신을 잃게 된다.

다행히 근처를 지나던 ‘미겔’이라는 사냥꾼이 이디를 발견하여 목숨을 구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 이디는 미겔에게서 산에서 텃밭을 놓거나, 사냥과 같은 산속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비록 모든 인간관계를 단절했지만, 미겔의 호의와 말과 노래는 거부하지 않는다.

미겔과의 관계 안에서 이디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가 드러나는데, 미겔의 조카에게 선물로 준 그림에서 세상을 떠난 아들이 꿈꾸었던 산속 오두막에서 함께 낚시하는 가족의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이디가 이곳에서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산에서의 삶도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이디는 남편과 아들의 상실을 마주하며 받아들이게 되고, 자신을 도와준 미겔이 오랫동안 찾아오지 않는 것을 걱정하면서 그를 찾아 나서게 된다.

주인공 이디처럼 상실과 슬픔에 짓눌려 일상의 삶을 살기 어려운 때도 있고, 바쁘게 살다 어느 순간 삶의 의미나 이유를 잃어버리는 때도 있다. 이럴 때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다.



우리 신앙 안에서 이를 ‘피정’이라고 한다. 이 피정의 모델은 예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는데, 바쁜 공생활 가운데 예수님께서서는 자주 외딴곳으로 물러가서 거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찾으셨고, 수난과 죽음이 다가올 때 겔세마니 동산에서 절실히 기도하셨다.

이디가 산에 들어가 상실의 슬픔을 이겨내고,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피정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관계의 상처를 치유하고,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 때 영육 간의 건강함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어떤 제약 없이 피정을 할 수 있는 좋은 때가 되었다. 그동안 내 안에 갇혀 주님과과의 관계에 소홀했다면 피정과 같은 영적인 시간을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신앙인이 되길 바란다.

조용준 니콜라오 신부
성바오로 수도회, 가톨릭영화제 집행위원장



교구장 대주교님 동정

- 5월 15일 견진, 사목방문(연산동)
- 5월 16일 주교회의 교회일치위원회(대림3동)
- 5월 17일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미사(남동)
- 5월 18일 성가롤로병원 건물 및 경당 축복식
- 5월 22일 사목방문(진도)



총대리 주교님 동정

- 5월 15일 견진, 사목방문(연동)
- 5·18도보순례 파견미사
- 5월 17일 주교현장 체험(서천 국립 생태원)
-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미사(남동)
- 5월 21일 건축위원회

사목국

카나 혼인강좌

일시 : 5.29(주일) 13:30-18:00
 장소 : 가톨릭평생교육원(103호)
 수강료 : 2인 3만 원
 계좌 : 농협 601135-55-000431
 광주구천주교회(카나혼인)
 신청 : www.gccatholic.or.kr → 참여마당
 문의 : 사목국 062) 380-2831

청소년사목국

5·18 정신계승을 위한 도보순례 및 추모미사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걷는 것”(미가 6,8)
 도보 순례 : 임동성당 - 518자유공원 - 염주동 성당
 추모 미사 : 5.15(주일) 15:30, 염주동 성당

정의 평화위원회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상영

제목 : 우리는 그날처럼 살고 있습니까?
 일시 : 5.16(월) 19:30
 장소 : 광주극장(금남로 4가 소재)
 문의 : 정의평화위원회 010-3579-9326
 ※ 천주교광주대교구 5·18민주화운동 40주년 준비위원회에서 기획하였으며 1980년 광주대교구 가톨릭의 활동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입니다.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미사 봉헌

일시 : 5.17(화) 19:30
 장소 : 남동 5·18기념성당
 미사 : 김희중 대주교
 문의 : 정의평화위원회 062) 380-2290
 ※ 참석하시는 신부님들께서는 영대와 제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를 거리곳

일시 : 5.21(토) 17:00-19:00
 장소 :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특설무대
 주최 : 가톨릭공동선연대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주관 : 가톨릭공동선연대
 문의 : 062) 380-2290

cpbc 광주가톨릭평화방송

www.kjpbcc.com FM 99.9MHz FM 99.5MHz

f 페이스북 kjpbcc99.9mhz t 트위터 kjpbcc

오늘의 강론 [월-토 06:50-07:00]

5.16(월)-18(수) 박재홍 신부(우산동) / 5.19(목)-21(토) 정성종 신부(임곡동)

광주가톨릭평화방송 희망과 치유의 인문학 특강 '4차산업혁명 시대, 신기술 속에서 찾는 삶의 지혜(인간)'



강사 : 백란 교수(호남대학교 교수, AI빅데이터연구소장)

일시 : 5.26(목) 15:00-16:30

장소 : 방송국 5층 다목적홀

관심있는 분이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의 : 062) 231-7725
 이 특강은 유튜브('광주가톨릭평화방송' 검색)를 통해 생중계합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 바랍니다.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종교프로그램) '수요일 코너'

- '생선가게(생활성가선물가게)' [5.18(수) 14:05-14:55]

노래로 찬양하고 선교하는 찬양사도들의 라이브 공연이 있는 시간입니다. 성가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사도들의 협회인 '가톨릭찬양사도협회'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5.18(수)에는 협회장 강훈 바오로 찬양사도, 부회장 윤순 로사리아 찬양사도, 총무 김연기 라파엘라 찬양사도가 출연해 라이브 공연을 만들어갑니다. 이 시간은 유튜브('광주가톨릭평화방송' 검색)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과 응원 바랍니다.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www.kccei.com

광주가톨릭문화원

가톨릭갤러리 현

책다하기사랑도서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80

T. 062) 380-2218

2022학년도 여름학기 강좌 안내(12주 과정)

• 교육문의 062) 380-2210~5

난타

강사 : 김지수

“배워서 자신도 행복해지고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난타 함께 호흡을 맞추며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즐거운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 초급) 64-8.20 / 매주 토 10:00-11:30 / 15만 원 • 중급) 64-8.20 / 매주 토 11:30-13:00 / 15만 원

스마트폰 어렵지 않아요

강사 : 임용기

스마트폰으로 직접 찍은 사진으로 나누고 싶은 글귀를 넣어 지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 등 스마트폰 활용법을 천천히 배우는 시간입니다. 총선 100%만 해오시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6.3-8.19 / 매주 금 10:00-12:00 / 10만 원

• 2022학년도 여름학기 전체강좌는 인터넷, 모바일 홈페이지 www.kccei.com 참조

광주가톨릭박물관 -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상영

“우리는 그날처럼 살고 있습니까?” - 대동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나눔과 연대

• 상영기간 : 5.17(화)-21(토), 10:30, 14:00(1일 2회 상영) • 상영시간 : 85분

• 장소 및 관람인원 : 광주가톨릭박물관 2층 영상실, 최대 관람인원 20명

• 문의 : 062) 380-2295



사회복지법인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코로나 장기화로 지쳐있는 우리의 이웃을 살펴주세요.

2022년,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와 동행해주세요. 후원금은 우리 교구 내 산하 사회복지시설, 교정사목, 병원사목,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후원 계좌 안내〉

농협 : 605-01-353182

광주은행 : 019-107-310370

우체국 : 500066-01-013298

국민은행 : 551-01-1449-309

구례 산동 연수관 이용 안내

장소 : 구례군 산동면 산수유꽃길로 402

대상 : 사회복지 시설 및 단체, 본당 제단체 등

면적 : 건물 70평

(1층-41평, 2층-29평)

문의 : 062) 510-2882

기관 · 단체

살레시오가족 후원회 미사

일시 : 5.16(월) 10:30
장소 : 살레시오 신안동수도원(전남대 정문)
문의 : 062) 512-0332

소화영성학교 및 법인후원회 미사

일시 : 5.21(토) 10:00-12:40
장소 :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대건문화관
강사 : 정인숙 교수
미사 : 조영대 신부
문의 : 062) 675-4023

아버지와 함께 놀며 쉬며(젊은이 피정)

기간 : 6.4(토)-5(주일)
장소 : 광주 가르멜수도원
대상 : 고등학생 이상(남자)
문의 : 010-2140-7414

가톨릭목포성지 후원회 미사

일시 : 매주 화요일 11:00
장소 : 산정동 준대성전 소성당(1층)
문의 : 061) 274-1004

국악성가장구캠프 참가자 모집

기간 : 6.24(금) 14:00-26(주일) 17:00
장소 : 일곡동 명상의 집
참가비 : 30만 원(장구 개인자참)
입금자 접수수 마감
계좌 : 국민은행 295401-01-187345
송민영(국악성가)
문의 : 010-2279-0255

국악성가반주자, 신입단원 모집

모집인원 : 반주자 1명, 합창단원 00명
지원자격 : 남(60세 이하), 여(55세 이하)
문의 : 한소리합창단 010-3609-1089

원어로 읽는 성경 기초반(히브리어, 희랍어)

일시 : 19:30-21:30(구약-목/신약-수)
기간 : 7월부터 1년간
zoom 수업 : 3개월에 30만 원씩
문의 : 프란치스코회 김성태 신부
010-4598-6912

수사 · 신부들과 제주성지 · 역사 · 생태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돌평화순례피정

자연순례 : 5.23(월)-25(수), 6.20(월)-22(수)
성지순례(추차도 포함) : 5.28(토)-31(화),
6.4(토)-7(화), 6.12(주일)-15(수)
문의 : 02) 773-1463, 064) 756-6009

제주성 이시돌 자연순례피정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섬'과 재충전의 순례피정
대상 : 개인, 가족, 일행, 본당단체 구반장
날짜 : 5.26(목)-28(토), 5.30(월)-6.1(수),
6.4(토)-6(월), 6.13(월)-15(수),
7.3(주일)-5(화), 7.8(금)-10(주일)
문의 : 02) 773-1455, 064) 796-4182

제주도 관광안내

제주운전기사사도회는 가족, 단체, 골프수송
관광 및 성지안내차량, 호텔, 펜션예약가능
문의 : 064) 758-6476, 010-4566-6476

임상사목교육(CPE)가을학기

일시 : 8.23(화)-12.6(화)
8.20(토)-12.10(토)
장소 : 천주의 성요한병원CPE센터
문의 : 010-2671-8174

살레시오여교 급식소 조리원(2명) 모집

일시 : 채용시까지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
문의 : 062) 220-1492, 062) 220-1441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요양보호사 채용

업무 : 독거어르신 방문 관리,
각종 서비스 지원 등
주소 : 광주 남구 독립로 96-1, 2층
문의 : 세그리노인복지센터 062) 413-0297

선교 · 수도회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성소모임

일시 : 5.21(토) 14:00
장소 : 서울 개화동 수도원
문의 : 010-3800-1579

예수고난회 격월피정

일시 : 5.24(화) 10:00-16:00
장소 : 일곡동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
주제 : 참 소중한 당신 / 피정비 : 1인 3만 원
문의 : 062) 571-5004

예수고난회 침묵피정

기간 : 5.27(금) 17:00-29(주일) 13:00
장소 : 일곡동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
피정비 : 14만 원
문의 : 062) 571-5004

사랑의 씨튼 수녀회 씨튼3040 피정

기간 : 6.5(주일)-6(월)
장소 : 논산 씨튼 영성의 집
대상 : 30-40대 남녀 젊은이 / 회비 : 3만 원
문의 : 041) 733-2992

살레시오회성소 모임

일시 : 매일 넷째 주 토-주일
장소 : 광주 신안동 수도원
대상 : 중1-35세 이하 미혼 남성
문의 : 김형식 루피치노 신부 010-3226-2038

예수회 성소 모임

일시 : 상시
장소 : 예수회 한국관구 성소실
문의 : 010-6357-0731

〈감사의 글〉

지난 5월 1일 세상을 떠난 저희 모친 박재남 베로니카를 위해 기도와 위로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이홍석, 이현석 신부 가족 일동 -

상설 고 해 소

- 교구청 성당

- 일시 : 화 13:30-15:00
금 18:30-20:00
- 장소 : 교구청 성당 고해실
- 성사집전
 - 화 : 교구 내 수도회 소속 신부
 - 금 : 골롬반회 신부
- 문의 : 062) 380-2210~5

- 산정동 준대성전

- 일시 : 매일 오후 14:00-16:00
(월요일 휴무)
- 장소 : 산정동 준대성전 고해실(2층)
- 문의 : 061) 274-1004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운동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밤 9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모경을 바친 후에)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평화의 모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를 함께 바치기 바랍니다.

